

# 카프카文學의 非現實的 表現과 現實性\*

박 환 덕

(독문과 교수)

## 1

카프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研究가 계속되어 왔다. 혹은 神學的·宗敎的 立場에서(M. Brod, E. Heller, H. J. Shoeps, M. Buber), 혹은 哲學的·存在論的 立場에서(W. Haas, M. Bense, W. Emrich, H. Jaeger, W. Biemel), 혹은 心理學的·精神分析學的 立場에서(W. Muschg, W.H. Sokel, A.P. Foulkes, H. Politzer), 혹은 社會學的·文化批判的·맑스主義的 立場에서(W. Benjamin, G. Adorno, H. Arendt, G. Lukács, K. Hermsdorf, E. Fischer, H. Richter, P. Eisner)<sup>1)</sup>, 혹은 受容美學的 立場(D. Krusche: Kafka und Kafka-Deutung)에서 論議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文獻學的·傳記的 立場<sup>2)</sup>에서의 研究가 특히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多樣한 分野에서의 多樣한 解釋이 가능하고, 또 이와같이 多樣한 論證들이 서로 對立하여 끊이지 아니함은, 카프카文學이 지닌 그 특수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카프카의 形象世界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하는 兩者擇一的인 世界가 아니고, <이것>과 <저것>을 同時에 포괄하고 있는 世界, 즉 <個와 一般, 意味와 具體 등이 하나로 一體化된 世界><sup>3)</sup>이다. 달리 표현해 보면, <희망과 절망, 진실과 허위, 죄와 무죄, 자유와 속박, 存在와 非存在, 믿음과 의심, 삶과 죽음, 知와 無知, 이승과 저승 등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 위치하고 있는 人間存在 그 自體><sup>4)</sup>가 形象化되어 있는 世界이다.

따라서 그의 文學世界에 대하여 극히 제한된 지면에서 하나의 완결된 解釋을 제시하는

\* 서울大 人文科學研究所 주관 “學術講演”(1986년 3월 28일)의 原稿를 손질한 것임을 밝혀둠.

1) Vgl. Peter U. Beicken: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 Frankf./M. 1974 S. 175~225.

2) Wuppertal대학 <프라하 독일문학 연구소>의 批評版 카프카 全集의 刊行을 위시하여 H. Binder의 《Der Schaffensprozeß》(1983)와 K. Wagenbach의 《Franz Kafka. Bilder aus seinem Leben》(1983)을 例로 들 수 있다.

3) 拙稿 카프카의 《審判》연구. 獨逸文學 제26집. 1981. 67面

4) W. Emrich: Zur Ästhetik der modernen Dichtung. in: Protest und Verheißung. Bonn u. Frankf./M. 1960 S. 125. <das menschliche Sein selbst in seiner unausgesetzten Spannung von Hoffnung und Hoffnungslosigkeit, Wahrheit und Lüge, Schuld und Unschuld, Freiheit und Gefangenschaft, Sein und Nichtsein, Glaube und Zweifel, Leben und Tod, Wissen und Nichtwissen und Hierzusein und zugleich Dortzusein...>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다만 〈프라하 유대인〉<sup>5)</sup>이라는 Franz Kafka의 특수한 社會的인 位置가 그의 文學에 어떻게 作用했는가를 살피면서, 그의 文學에 接近해보고자 한다.

## 2

카프카의 文學은 奇異한 것, 超現實的인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한 Kasimir Edschmid<sup>6)</sup>의 批判에 대하여 카프카는 야누흐와의 對話에서 다음과 같이 反論하고 있다.

〈Edschmid는 내가 平凡한 事件 속에 奇跡을 슬쩍 끼워 넣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中대한 오류입니다. 平凡한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기록할 뿐입니다.〉<sup>7)</sup>

카프카는 자신은 극히 당연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他人이 자신의 글을 非現實的인 것으로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눈을 감고서, 現實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Edschmid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프카의 크고 작은 作品을 읽는 독자는, 일반적으로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Der Prozeß》(審判)의 경우에 있어서, 주인공 Josef K.는 어느날 아침 갑자기 체포된다. 그러나 주인공 자신은,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재판소도 그의 罪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록 체포되었다고는 하나, 은행원으로서의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이 〈재판조직〉의 世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現實의 世界에는 存在할 법 하지 않은 世界이다. 《Das Schloß》(城)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다. 주인공 K.는 토지측량기사로서, 어느날 저녁 눈으로 하얗게 덮힌 城 앞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城으로부터 측량기사로서 부름을 받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직책에 대한 城의 관리들과의 교섭은 언제까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그 마을에서의 체류허가도 얻지 못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城은 이 현실의 世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城은 아닌듯 하며, 마을사람이나 城의 관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日常의 世界의 住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小品의 경우에 있어도 다를바가

5) 1848년의 유대인 解放令의 公布 이후, 유대인들은 점차로 프라하 上流社會에 진출하여 1900년을 전후해서는 經濟·文化的으로 支配階층에 속하게 되나, 독일인으로부터는 천대되고, 체코인으로 부터는 적대시되는 특수한 프라하 유대인의 社會적인 지위를 의미함.

6) Kasimir Edschmid (1890~1966): 원명은 Eduard Schmid이며, 초기 표현주의 문학의 기수(旗手)이었고, 1918~22에는 《Tribüne für Kunst und Zeit》誌의 발행인이었다.

7) Gespräche mit Kafka. Erinnerung und Aufzeichnungen von Gustav Janouch. Frankf./M. 1951 S. 38.

〈Edschmid behauptet, daß ich Wunder in gewöhnliche Vorgänge hineinpraktiziere. Das ist natürlich ein schwerer Irrtum von seiner Seite. Das Gewöhnliche selbst ist ja schon ein Wunder! Ich zeichne es nur auf.〉

없다. 《사냥꾼 그락쿠스》<sup>8)</sup>에 있어서 주인공 그락쿠스는 죽어 있으면서 어느정도 살아있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그의 죽음의 배가 향로를 잘못 들어섰기 때문인데, 이 잘못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그에게 분명한 것은 그가 여전히 이 地上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小品을 읽게 되면 독자는 정신적으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허공에 뜬 세계를 방황하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현실적인 時間 空間의 관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꿈속의 세계를 헤메이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된다.

이처럼 그의 作品은 거의 모두 <非現實의 世界>를 묘사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그러나 카프카는 실제에 있어서는 非現實의 世界가 아니라, 진짜 現實의 世界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다. 다음의 對話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프랑스의 미술전시회가 프라하에서 개최된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피카소의 그림도 함께 전시되었다. 전시회를 관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야누흐는 카프카에게 <피카소는 방자한 테포르마시옹 畫家>라고 말하자, 카프카는 피카소의 그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카소를 지칭] 우리들의 意識 속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아직은 形體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예술은 — 때로는 — 時計와도 같이 '알아가는' 것입니다.〉<sup>9)</sup>

피카소의 畸形化 또는 추악화(Deformation)는, 카프카의 非現實의인 묘사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카프카는 피카소의 그림을 통하여, 실은 자신의 藝術을 解明하고 있다. 피카소는 기형화된, 추악화된 그림 속에 眞實을 표현하고 있으며, 카프카는 非現實의인 표현수법에 의하여 眞實을 묘사하고 있다.

### 3

三大小説의 모델이 되고 있는 小品 《사냥꾼 그락쿠스》에 있어서는 生과 死, 육상의 생활과 水上의 생활, 사냥꾼과 뱃사공의 수호신, 이승과 저승등 여러 表象이 상호대립하고 있다. 주인공 그락쿠스는 이와같이 상호대립하고 있는 兩極으로부터 차단된 채, 異空間으로서의 <中間領域>을 표류하고 있다. 중간영역을 표류하고 있는 그락쿠스는 도리어 그 때문에 <生>에만 한정된 所有의 世界에 얽매이지 아니한 채, 전체와의 聯關 속에서 自然과 世界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sup>10)</sup> 카프카의 主人公들은 이와같이 日常的·經

8) Franz Kafka: Der Jäger Gracchus. in: Beschreibung eines Kampfes. Frankf./M. 1976.

9) G. Janouch: Gespräche mit Kafka. S. 88. <Das glaube ich nicht. Er notiert bloß die Verunstaltungen, die noch nicht in unser Bewußtsein eingedrungen sind. Kunst ist ein Spiegel, der vorausgeht, wie eine Uhr — manchmal>

10) 拙稿 F. Kafka의 „Der Jäger Gracchus“ 연구. 서울대 人文論叢 제 3집 1979. 109面.

驗의인 世界와 非日常的·抽象的·異領域的인 世界사이의 中間地帶 즉 경계에 머물고 있다.

이 <경계>의 世界는 人間과 動物, 生物과 無生物등이 명확한 구분없이 상호 혼돈되어 존재하는 世界이다.

Helen Milfull은 《어느 學術院에 드리는 보고서》의 解說에서, 주인공 Rotpeter는 중국에 이르러서는 <원숭이도 아니고, 人間도 아닌, 즉 원숭이의 世界와 人間の 世界 어느쪽에든 定住하지 아니한 中間的 存在, 雜種에 지나지 않는다><sup>11)</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어느 한 世界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개의 世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世界에도 속해 있지 아니한 <中間的 存在>의 形象化는 作家 카프카의 탄생과 無關하지 않다.

카프카의 兩親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서로 相反된 환경출신이다. Hermann Kafka는 체코 유대계의 地方천민출신이며 결혼할 당시(1882년 9월)에는 이미 철거가 시작되고 그 20년 후에는 완전히 철거되어 버린 유대인 Getto의 빈민굴에서 살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Julie Löwy는 부유하고 교양있는 독일 유대계 시민계급 출신으로서 都心(Altstädter Ring)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다. Franz Kafka는 그 1년 뒤인 1883년에 이 대조적인 두 家門 사이에서, 그리고 이 대조적인 <두 市區域의 경계에서><sup>12)</sup> 태어났다. 그는 Getto 區域과의 경계에서 성장하면서, 비록 독일계 학교에 다니면서도 체코 民族과의 밀접한 관계를 잃은 적이 없으며, 일생동안 체코어를 거의 나무랄데없이 말하고 쓸 수 있었다. <경계>적 상황은 그의 宿命이었다.

카프카는 1921년 10월 29일자 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孤獨과 共同社會사이의 이 境界地帶에서, 나는 거의 밖으로 넘어선 적이 없다. 그 뿐만이 아니고, 나는 고독 그 자체의 內部보다는 이 境界地帶에 보다 많이 定着해 있었다.><sup>13)</sup>

<境界地帶><sup>14)</sup>는 두 世界의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해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두 世界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카프카는 이 <경계지대>에서 다른이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즉 現實의 밑바닥에 가려져 있는 <非存在의 世界>를 본 것

11) H. Milfull: Weder Katze noch Lämm? Franz Kafkas Kritik des „Westjüdischen.“ in: Im Zeichen Hiobs (Hrsg. G. E. Grimm/H. P. Bayerdörfer) Königstein/Ts. 1985 S. 183. <Am Ende ist er weder Affe noch Mensch, sondern ein „Zwischending“, eine „Kreuzung“, in keiner der beiden Welten beheimatet.>

12) K. Wagenbach: F. Kafka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Hamburg 1964 S. 17. <Kafka selbst wurde ein Jahr später, am 3. Juli 1883, genau an der Grenze dieser beiden Stadtteile geboren.>

13) F. Kafka: Tagebücher 1910~1923. Frankf./M. 1976. S. 401. <Dieses Grenzland zwischen Einsamkeit und Gemeinschaft habe ich nur äußerst selten überschritten, ich habe mich daran sogar mehr angesiedelt als in der Einsamkeit selbst.>

14) „Grenzland“는 <경계지대>로 해석했는데, <邊境地帶>로도 해석할 수 있다. <프라하 유대인>의 고립된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나타낸 말임.

이다. 이 〈경계지대〉는 카프카에게 있어서는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點〉인 것이다.

〈그는 아르키메데스의 點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하여 不利하게 이용하였다. 분명히 그는 그러한 조건하에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5)</sup>

라고 카프카는 《補遺 Er-系列》에서 기록하고 있다.

아르키메데스의 點은 그리스의 철학자인 동시에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數學上의 地點으로서, 그는 地球 밖에 하나의 地點이 주어진다면, 지렛대로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외쳤다.

만약 우리가 地球를 관찰하려면, 우리는 地球밖으로 나갔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며, 그리고 우리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視點을 外部의 어느 地點에 두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카프카에게 있어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點은, 從來의 傳統的인 思考方式과 固定觀念을 일시에 타파해 버리는 획기적인 視點인 것이다.

Bertolt Brecht는 그의 《演劇術小論》에서 새로운 現實을 옹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視線 즉 Galilei가 산테리아의 흔들림을 感知하고서 〈흔들이의 等時性的 法則〉을 발견한 그러한 視線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異化는 社會的으로 영향이 있는 事件으로부터 친숙이라는 스타มป์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 오랜동안 변화하지 아니한 것은, 영구히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누가 자신에게 친숙되어 있는 것을 의심하겠는가? 이러한 주어진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저지대한 Galilei가 振子운동을 하는 산테리아를 관찰한 것과 같은 낮은 視線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振動은 마치 그와같은 것은 예기치도 아니했던, 그 자체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서 Galilei를 놀라게 하였고, 이 놀라움을 통하여 그는 法則에 도달했던 것이다.〉<sup>16)</sup>

이 視點에서, 즉 Galilei의 〈낮선 視點〉에서, 〈아르키메데스의 點〉에서 바라본 이 現實의 世界는, 이미 지금까지의 時間 空間의 개념 因果律, 合目的性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는 調和로운 世界는 아니다. 存在의 不條理가 드러난 〈非連續의 世界〉<sup>17)</sup>이며, 모든 價値가 否定

15) Franz Kafka: Parolipomena. [Zu der Reihe >Er<] in: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Frankf./M. 1976. S. 303. <Er hat den archimedischen Punkt gefunden, hat ihn aber gegen sich ausgenutzt, offenbar hat er ihn nur unter dieser Bedingung finden dürfen.>

16) B. Brecht: Kleines Organon für das Theater. in: Schriften zum Theater. Frankf./M. 1967. S. 151. <Die neuen Verfremdungen sollten nur den gesellschaftlich beeinflussbaren Vorgängen den Stempel des Vertrauten wegnehmen, der sie heute vor dem Eingriff bewahrt. […] Das lange nicht Geänderte nämlich scheint unänderbar […] wer mißtraut dem, was ihm vertraut ist? Damit all dies viele Gegebene ihm als ebensoviel Zweifelhafte erscheinen könnte, müßte er jenen fremden Blick entwickeln, mit dem der große Galilei einen ins Pendeln gekommenen Kronleuchter betrachtete. Den verwunderten diese Schwingungen, als hätte er sie so nicht erwartet und verstünde es nicht von ihnen, wodurch er dann auf die Gesetzmäßigkeiten kam.>

17) Takahiro Arimura: Kafka und seine Dichtung. Tokyo 1985. S. 42.

되고 참된 절대적인 것은 이미 存在하지 않는 그러한 世界이다.

카프카는 이 視點에서, 現實의 世界를 관찰하고, 또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다. 이러한 中間的인 <境界의 世界>가 카프카에게 있어서는 <未開拓의 世界이며 또한 創造의 世界><sup>18)</sup>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프카의 <空間感覺>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며, 그는 어찌서 이 <境界>의 주제만을 一貫해서 追求했는가 하는 문제에 直面하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카프카 자신의 個人的인 體驗과 그리고 유대民族으로서의 集團 無意識<sup>19)</sup>이 그의 文學에 대하여 어떻게 作用했는가 하는 말이 되겠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境界都市 프라하>와 <境界人間> 프라하 유대인 프란츠 카프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하겠다.

카프카 時代의 프라하 즉 1880~1920年代의 프라하에 있어서의 유대인 社會의 實相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人의 民族史<sup>20)</sup>와 체코의 歷史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 4

기원전 2000년에 슈메르 帝國이 패망하고서 유대民族의 始祖 Abraham이 首都 우르를 떠난 이후, 1948년에 Israel國이 獨立宣言을 하게 될 때까지의 4000년의 유대民族史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대民族을 소멸시키려는 他民族의 위협에 대한 피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한때 페르시아에서 크게 威勢를 떨친 시기(BC 13C~10C)도 있었다. 즉 <出애굽> 이후의 가나안 征服에서 부터 예루살렘 神殿의 건립때까지의 약 3000년은 유대民族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約 3000년은 끊임없는 他民族의 침략에 의한 참화를 면치 못했는데, 그중에서도 최대급으로는 다음의 세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는 亡國과 바비로니아의 노예시절이고,

둘째는 17세기 중엽의 폴란드에 있어서의 코사크에 의한 大迫害였으며,

셋째는 20세기의 Nazi에 의한 대학살이었다.

나라가 亡한 뒤, 유대인들은 民族的 正體性을 그들의 宗教的 傳統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信仰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生活體系였다. 바비로니아의 노예시절에, 그들은 모세五經을 中心으로 聖書의 結集을 보았으며, 추방이후의 노력의 結實은 口傳律法의 文書化와 그의 集大成으로 나타났다. 즉 390년의 <예루살렘 탈무드><sup>21)</sup>와 500년의 <바비로니아 탈

18) Hiroshi Ikeda u.a.: Interpretation der Dichtung Franz Kafkas. Kyoto 1982. S. 7.

19) C.G. Jung의 <태고유형>을 의미함. 참조. 켈빈 S. 홀(외): 융 심리학 입문(崔鉉譯) 52面 이하.

20) 유대인 民族史는 다음의 저서에서 간략하게 간주렸음을 밝혀 둠. Kafka-Handbuch Bd. 1. Der Mensch und seine Zeit, Shigeru Taniguchi: Franz Kafka und das Judentum., M. Brod: Über Franz Kafka.

21) 탈무드(Talmud)는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후 9세기까지의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적인 口傳과 解說을 集大成한 책으로서,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비로니아 탈무드>의 2종이 있다.

무드)가 그것이다.

國土와 國家를 갖지 못한 유대인에게는 聖書와 탈무드가 곧 國土와 國家를 대신하는 民族的 正體性의 기반이었다. 天地創造의 이야기로 시작되며, 南 유대王國의 멸망으로 끝나는 古代 이스라엘 民族史를 중심으로 하는 聖書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選民>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탈무드는 유대교 랍비<sup>22)</sup>의 代代에 걸친 律法의 注解였는데, 이는 유대인의 民族的 正統性을 유지하기 위한 生活規範이었다.

國土와 政治의 統一體를 갖지 못한 유대인들은 各地의 유대인共同體로서 랍비를 中心으로 하는 自治組織을 形成하고 그 소속하는 國家의 가혹한 支配를 참아가며, 民族精神의 말살의 위기를 극복하여, 宗教的 傳統에 의한 民族再生의 희망으로 질기게 살아왔다.

체코의 民族史<sup>23)</sup>도 역시 고난의 歷史였다. 오늘의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프라크로<sup>24)</sup> 불리었다. 프라크는 오스트리아 독일인에 의하여 불린 명칭으로서, 形式上으로는 1868~1918년까지의 오스트리아·헝가리 二重帝國<sup>25)</sup>의 屬領 보헤미아王國의 首都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王朝에<sup>26)</sup> 의한 16세기 초반부터의 植民地支配를 의미한다.

체코는 16세기 이래 300년에 걸친 합스부르크王國의 支配에서, 제 1차 大戰이 끝난 뒤에 이르러 겨우 民族獨立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939년에는 독일의 Nazi에 의하여 다시 침략을 당했으며 제 2차 大戰의 終結로 다시 民族的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國家再建의 노력이 結實을 보고, 독특한 國家體制를 준비하는 순간에, 즉

22) 랍비(rabbi)는 <나의 스승>이라는 히브리어. 원래는 유대교에서 종교지도자에 대하여 사용하던 경칭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유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성직사로서, 일정한 의식상의 일을 관장하고, 제사를 담당하며, 설교를 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함. 이들을 律法學者라고도 부름. 유대인 共同體는 랍비를 中心으로 하여 民族的 正體性을 확립하였음.

23) 체코의 歷史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에서 간략하게 간추렸음을 밝혀둠. H. Binder: Kafka-Handbuch Bd. 1., M. Brod: Über Franz Kafka., R. Hayman: Franz Kafka. Sein Leben, seine Welt, sein Werk., K. Wagenbach: F. Kafka., T. Arimura: F. Kafka und seine Dichtung.

24) 체코의 首都의 정확한 명칭은 프라하이머, 프라크(Prag)는 오지리 독일인에 의하여 붙여진 명칭으로서 오지리의 식민지를 연상시킨다. 그리하여 체코인에게는 이 명칭이 굴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체코인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명칭임.

25) 오스트리아·헝가리 二重帝國: 오스트리아는 원래 국가의 중심을 이루는 독일민족 이외에 폴란드인, 체코인, 마자르인, 이탈리아인, 남부 슬라브 諸族 등을 포함한 多民族 國家이다.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 패함으로써 독일에 있어서 패권을 잃게 되자, 국가의 통일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内部 異民族의 독립운동을 억압하기가 곤란해졌다. 결국 1867년에 헝가리 마자르인 귀족과 타협을 맺어 헝가리 王國의 건설을 허락하였고 오스트리아 황제 Franz Josef I 세가 國王을 겸함으로써 同君聯合인 오스트리아·헝가리 二重帝國(1867~1918)이 成立되었다. 이때에 보헤미아 귀족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보헤미아의 三國同君聯合을 기대했었다.

26) 합스부르크 王朝: 합스부르크家(Habsburger)는 오스트리아의 舊 皇室이며 유럽 제일의 名門家. 10세기경 알사스에서 북 스위스에 걸친 小領主에서 비롯되었고, 11세기에 스위스에 합스부르크 山城을 쌓은 후로 합스부르크伯이라 불렸다. 1273년 루돌프 I 세가 독일 諸侯에 의하여 국왕으로 선출된 후, 교묘한 결혼정책으로 세력을 확장한 家門인. 합스부르크家에 의한 오스트리아의 支配는 1278년에 시작되었고,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함으로써 카를 I 세의 퇴위로 終結되었으며, 그후 오스트리아 共和國이 성립됨.

1968년에 다시 바르샤바 條約軍의 進駐로<sup>27)</sup> 民族自決權을 유린당했다.

체코는 1618년에 貴族들을 中心으로 하여 民族獨立의 투쟁을<sup>28)</sup> 전개하는데, 不幸히도 1620년 11월 8일 프라하의 교외 비라·호라(하얀 산)의 決戰에서 체코의 귀족연합군은 비엔나의 Ferdinand II 세軍에 의하여 완전 패배하게 된다. 그 결과로 체코의 귀족은 모두 처형되거나 추방되었으며, 귀족의 土地는 모두 황제의 측근에게 分配되었다. 체코어는 公用語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독일어만이 사용되었다. 체코의 人口 300萬 中에서 카톨릭으로 改宗한 80萬명만이 살아남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체코語가 다시 公用語의 자리로 복귀하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당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황제 Josef II 세<sup>29)</sup>가 체코語에 의한 교육을 허락하고, 官吏는 民衆과 만날 때에는 체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公布하고서 부터이다.

民族文化의 源流인 체코語가 되살아나자, 체코인의 獨立에 대한 염원도 점차 고조되었다. 체코인은 民族國家의 제 1 단계로서 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의 三國同君連合國體制를 바랐는데, 1868년에 成立한 것은 오스트리아·헝가리 二重君主制였다. 그리하여 체코인들은 비엔나의 王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서, 오스트리아 社會民主노동당과 제휴하여, 실질적인 活動으로 자신들의 政治力을 강화하여 마침내 1890년대<sup>30)</sup>에는 정치적인 지도권을 장악하였다.

유대인이 地中海 연안에서 알프스를 넘어 오스트리아의 산악지대를 경유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칸반도를 경유하여 체코에 처음 이주해 온 것은 1000년 전의 일로 전해지고 있다.

체코(보헤미아)王國의 최초의 王朝는 프레이슬 왕國(9세기~1306년)이었는데, 이 王國의 傳說上의 始祖 女王 리브샤는 죽음의 병상에서 아들 네사스밀에게 다음의 유언과 예언을 남긴다.

<아들의 曾孫代에 이르면 唯一神을 믿는 異民族 一團이 이 나라를 찾아와서는 거주의 허락을 요청할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에 行운을 가져올 것이니 철회 받아들이라.>

27)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제12차 당대회를 계기로 非스탈린化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개인숭배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언론 작가 학생 지식인의 끈질긴 자유화 투쟁이 곁들여져 공산당내의 진보파가 세력을 얻어 1968년 1월에는 A. 두브체크가 당 제1서기로 선출되었다. 두브체크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그해 8월 20일에 소련·동독·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 등 5개국 的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의 침입으로 민주화 계획은 좌절되었다.

28) 1617년 카톨릭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 합스부르크家の Ferdinand II 세가 보헤미아의 王이 되면서 수적으로 우세한 프로테스탄트의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1618년에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났다.

29) Maria Theresia와 Franz I 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Josef II 세 (1741~1790)는 1780~1790에 즉위하였음.

30) 1890년의 프라하 박람회를 계기로 하여, 거리의 표지판이 독일어에서 체코어로 바뀌고, 전차가 가설되는 등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체코인의 독립에 대한 염원도 더욱 고조되었다.



이 예언은 적중하여, 女王이 죽은지 100년뒤, 네사스밀의 曾孫 호스티비드 治下 때에 北方으로부터 迫害를 받고 쫓겨온 유대인 集團이 定住를 요청한다. 호스티비드王은 始祖女王의 유언을 지켜 그들의 소원을 받아드려, 城아래에 거주지를 제공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9세기 말까지 살고 있었으나 人口의 증가로 장소가 협소하여 보지비王의 命을 받아 몰다우江 동쪽으로<sup>31)</sup> 이주하게 된다.

체코가 1620년 이후 합스부르크 王朝에 의하여 독일化 政策이 강요될 때에 유대인들은 반 강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독일文化에 영합하였다. 프라하 유대인들의 독일적인 것에 대한 同化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복종이었는데 체코인의 눈에는 背信으로 비쳤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독일文化에의 同化에 의하여, 자신들의 解放과 平等을 획득하였다. 1848년 Franz Josef I세에 의하여 <유대인 해방令><sup>32)</sup>이 公布되었다. 이때까지 유대인은 누구나 일정한 유대인稅를 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稅가 폐지되고, 그리고 유대인은 都市마다 一定數의 定員制가 있었는데, 이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타고난 근면성으로 富와 地位를 획득하여 프라하 上流社會에 올라서게 되었다. 1900년의 統計에 의하면 實業家,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의 90%가 독일系였는데, 그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sup>33)</sup> 그 결과로 19세기末 프라하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變則的인 社會계층>이 형성되었다.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다수파의 체코인 社會의 안정된 三角形 위애, 소수파의 독일系 주민의 不安定한 작은 逆三角形이 경제적 文化的 支配계급으로서 엮히게 되었다.<sup>34)</sup> 후자에 있어서는 社會의 저변에 해당하는 하층계급은 극히 작은 수였고, 頂點에 해당하는 상류계급이 기이하게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사실이 곧 독일系 住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社會속에 특수 <프라하적인 孤立性>을 낳게 된 原因이 되었다. 유대인으로서 진정 지배계급인 완전한 독일인도 아니고 宗教에도 무관심한 都市유대인으로서 正統유대인도 아니고, 독일어 사용자로서 체코인도 아니었다. 프라하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닌 人間> 즉 <境界 人間><sup>35)</sup>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독일의 文化와 社會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여겼으며, 체코인들은 은혜에 대한 背信者로 여겼으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인으로서 적대시하였다.

어린 카프카는 유대인의 숙명과 그의 배후에 깔려 있는 정치적·사회적인 차별을, 즉 오스트리아 보헤미아의 反유대주의를 몸소 체험하였다. 자신의 民族은 환영받지 못하는 民族

31) 몰다우江 東쪽에 위치하는 Josef 區(유대인 게토)를 말함.

32) Franz Josef I세(1830~1916)는 1848년에 유대인 解放令을 公布하였다. 그때까지 유대인은 長男이 아니면 결혼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33) 1900년의 통계에 의하면, 프라하 주민은 교외도시를 포함해서 50만명이었으나, 市 자체의 人口는 14만명이었다. 그중에서 독일어 상용인구는 34,000명이었고 유대인은 25,000명이었다.

34) Hiroshi Ikeda u.a.: a.a.O. S. 10.

35) a.a.O. S. 10.

임을 일찌기 자각했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人間>이라는 사실을 일찌기 인식하였다. <아무것도 아닌 人間>, 즉 非存在를 인식한 그는 쉽사리 어느 人間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作家로서, <아무것도 아닌 人間>이라는 인식을, 個人과 民族共同體의 한계를 넘어서서, 人類보편의 층에까지 다달아 진짜 人間의 모습을 관찰하고 形象化하였다.

그의 作品에는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고 영원한 이방인으로서의 유대인의 운명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독과 소외에 시달리는 現代人間의 모습이 상징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실종자》<sup>36)</sup>의 Karl Roßmann은 아메리카 各地를 放浪한다. 그는 天使와도 같이 순수한 魂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定着할 수가 없다. 그는 가는곳마다 局外者로서 추방된다. 마침내 그는 <누구든 환영한다>라는 역설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오클라호마 극장으로 영구히 추방된다. <살 祖國>을 갖지 못한 유대인의 숙명과 더 나아가서는 <存在근거>를 상실한 現代인이 상징되어 있다.

《심판》의 Josef K.는 어느날 마침내 체포된다. 그는 法治國家에서 어쩌서 이와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의심하고서, 그 이유를 따지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는다. 그는 마침내 개처럼 처형된다. Josef K.의 공포 속에는 <法>밖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유대인의 고뇌와 現代인의 소외와 고독이 엿보인다.

H. Politzer는 1880~1920年代의 유럽文學에 있어서 都市의 모티브가 근본적으로 變化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都市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人間과 人間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不可能하고, 都市는 단지 고독한 群衆의 집산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대인은 現代都市의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부터 줄곧 都市型의 삶을 살아 왔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나라가 亡하고서 民族의 이산이 시작된 이래, 즉 國土와 國家를 갖지 못하여 大自然의 근원에서 용솟음치는 生活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 다음, 他民族은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都市가 갖는 소외와 고독을 체험하는데 反하여, 유대民族은 民族이산 이후 줄곧 都市型의 삶을 살아왔으며, 1900년을 전후하여 또 하나의 都市型의 삶, 즉 존재근거의 상실이라는 도시성을 他民族과 함께 二重으로 체험하였다고 주장하며, 카프카文學의 위대성은, 유대인의 都市型의 특성을 20세기의 존재근거의 상실에 대한 形而上學的 不安과 일치시킨 점에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sup>37)</sup>

## 5

다음에는 《變身》에 있어서, 카프카적인 특수한 상황이 그의 文學에서 어떻게 形象化되어

36) M. Brod는 이 작품을 《Amerika》의 제목으로 刊行하였으나, J. Born u.a. 편집의 批評版 全集에는 《Der Verschollene》(실종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기로 함.

37) H. Politzer: F. Kafka und seine Milieu. (T. Arimura: F. Kafka und seine Dichtung. S. 36) 再引用.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간략하게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다. Gregor Samsa는 어느날 아침 不安한 꿈에서 눈을 뜨자, 자신이 巨大한 甲蟲으로 變身되어 있음을 본다. Gregor는 유능한 세일즈맨이다. 부친이 사업에 실패한 후, 그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양친과 누이를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甲蟲으로 變身을 했지만, 그의 의식은 人間 그대로의 것이며, 기차시간을 의식하면서 출근을 서두른다. 그러나 그는 變身했기 때문에 이미 現實의 社會生活을 할 수가 없다. 출근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죽을때까지 變身된 채, 어두운 자기방에서 甲蟲으로서의 生活을 한다. Gregor는 家族의 말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의 소리는 가족에게 동물의 꺽꺽거리는 소리로만 들린다. 처음 가족들은 Gregor의 變身은 일종의 病이 아닌가 생각하고서 동정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그의 몸통은 人間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점차 서먹서먹하게 여긴다. 그리고 마침내 Gregor를 진짜 괴물로 취급한다. 生活의 길이 끊기자 가족은 일하기 시작한다. 병약해서 집에서 낮잠이나 자던 아버지는 은행의 수위로 취직한다. 어느날 Gregor가 어머니와 누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그의 등에 사과를 던진다. 그 상처가 原因이 되어 Gregor는 죽게된다. 가정부가 Gregor를 치워버린 다음, 어머니와 누이는 밝은 기분으로 郊外에 소풍을 간다.

카프카는 Gregor의 變身に 대하여 直接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Gregor 자신도 어찌서 변신했는지, 놀라긴 하나,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지 않는다.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도 Gregor가 변신했던 사실을 인정하나, 왜 그가 변신했는지의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모든 登場人物은 變身이라고 하는 現象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의 경우는 다르다. 現實의 世界에서는 人間이 甲蟲으로 또는 다른 生物로 변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독자는 변신이라고 하는 超現實의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 作品에는 다음의 테마들이 클로즈업되어 있다. 그 하나는 父子갈등으로 나타난 個人과 共同體와의 關係이고, 다른 하나는 存在의 붕괴에 대한 形而上學的인 不安의 문제이다. 카프카에게 있어서 父子갈등의 문제는 2重의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자연인 Hermann과 Franz와의 對立이요, 다른 하나는 유대人社會의 傳統에서의 父子間의 문제이다.

카프카는 父系의 유전적인 특징으로 <강인함, 건강, 언변술, 자기만족, 지구력><sup>38)</sup> 등을 들고 있는데, 카프카 자신은 이러한 카프카家の 유전적인 특징을 거의 이어 받고 있지 않다. K. Wagenbach도 《카프카 評傳》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유전적인 요소는 그쪽과는 반대로 [어머니쪽으로부터와는 달리] 비교적 미미하다><sup>39)</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38) F. Kafka: Brief an den Vater. in: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Frankf./M. 1976. S. 121. <an Stärke, Gesundheit ... Redebegabung, Selbstzufriedenheit, ... Ausdauer...>

39) K. Wagenbach: Franz Kafka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Hamburg 1964. S. 15. <Das vom Vater Ererbte war dagegen vergleichsweise gering.>

自傳적인 要素가 짙은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카프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두 사람 [아버지와 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저는 Kafka의 家系이지만, [어머니쪽인] Löwy家의 人間입니다. 카프카家의 생활욕, 사업욕, 정복욕에 의해서가 아니고, Löwy家 특유의 예민함에 의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다 비밀스럽게, 보다 수줍어하면서 다른 方向을 향해서 행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종종 완전히 정지해버리기도 하는 인간입니다.><sup>40)</sup>

실제로 Hermann은 外向的이고 활동가 타입이었으며, Franz는 內向的이고 병약하고,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였다. 두사람의 關係는 現實主義者 對 몽상가의 圖式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M. Brod는 <... 兩親은 어린이가 부딪치는 최초의 문제이며, 대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초의 저항이다. ... 人間은 人生과 世界를 적으로 하여 투쟁을 시작하는데, 敵으로서 제일 먼저 出現하는 것은 兩親이다.><sup>41)</sup>라고 주장한 다음, 카프카의 父親과의 非正常的인 關係가 그의 文學의 獨自性을 낳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종을 강요하는 支配者로서의 아버지의 영향력에 항거하여 獨立과 自由를 구하여 투쟁하는 카프카에게는, 그러나 子息은 아버지의 依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모순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해방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카프카에게 있어서 父子의 문제는 그의 거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다.

주인공 Gregor는 자신이 變身된 뒤에도, 양친과 누이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이를 음악학교에 보내겠다고 까지 꿈 꾸다. 여기에서는 <家族에 대한 責任>이라는 테마가 클로즈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 Brod는 <카프카의 作品들에 있어서도, 家族에 대한 責任感이라는 中心테마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變身》, 《宣告(Das Urteil)》, 《火夫(Der Heizer)》 등의 中篇과 그리고 다른 作品들의 主要細目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sup>42)</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족의 부양을 걱정하는 Gregor의 위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태는 變身에 의하여 역전된다.

그가 變身하기 전에는 일어나는 일 조차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기운을 차려 은행

40) F. Kafka: Brief an den Vater. S. 121.

<Vergleich uns beide: ich, um es sehr abgekürzt auszudrücken, ein Löwy mit meinem gewissen Kafkaschen Fond, der aber eben nicht durch den Kafkaschen Lebens-, Geschäfts-, Eroberungswillen in Bewegung gesetzt wird, sondern durch einen Löwy'schen Stachel, der geheimer, scheuer, in anderer Richtung wirkt und oft überhaupt aussetzt.>

41) Max Brod: Franz Kafka. Eine Biographie. in: Über Franz Kafka. Frankf./M. 1974. S. 36. <..., daß die Eltern das erste Problem sind, das dem Kinde entgegentritt, der erste Widerstand, mit dem es sich auseinandersetzen muß; ... Der Mensch tritt zum Duell mit Leben und Welt an. Erster Gang: die Eltern>

42) M. Brod: a.a.O. S. 40 <Auch in Kafkas Werk findet man den Zentralpunkt: Verantwortung vor der Familie! Dies der Schlüssel zu Novellen wie >Die Verwandlung<, >Das Urteil<, >Der Heizer< und zu manchem Detail in anderen Werken.>

의 제복을 입고 근무에 임한다. 甲蟲으로 變身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Gregor와는 강력한 대조를 이룬다. 아버지는 家長으로서의 權威를 회복했고, 이제는 아버지의 추격이 진행된다. 어머니와 누이는 Gregor의 방안의 가구류를 정리하던중에, 벽에 걸린 그림을 빼게 된다. 이때 Gregor는 그림을 必死的으로 지키려고 한다. 그 그림은 여인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에 대한 Gregor의 집착이 원인이 되어, 어머니는 실신하고 누이는 놀라서 뛰쳐나온다. 아버지는 두 女人을 지키기 위하여<sup>43)</sup>, Gregor에게 사과를 던져 위협하고, Gregor는 방으로 쫓겨들어간다. 이 일로 아버지와 Gregor와의 대립은 決定的인 것이 된다.

Gregor는 한차례 아버지로부터 獨立하여, 스스로의 責任에 의하여 행동할 수가 있었으나, 變身이 가져다 준 不利한 條件으로, 다시 아버지에 의하여 支配된다.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맞아, 그 상처가 악화되어 죽게된다. Gregor는 아버지에 의하여 죽음을 맞게 된다. 철저한 패배이다.

家長인 아버지의 重壓에 고민하는 子息의 고뇌, 아버지로부터 獨立하여 아버지를 뛰어넘으려는 子息의 반항, 즉 父子갈등의 문제가 테마化되고 있다. 여기에서 카프카는 단순한 個人의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1921년 6월 M. Brod에게 보낸 편지에서 카프카는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이 父親 콤플렉스(Vater-Komplex)는 죄없는 父親個人의 문제가 아니고, 부친의 유대성의 문제로 해석하는 쪽이 정신분석보다는 훨씬 마음에 든다><sup>44)</sup>라고 밝히고 있듯이, 아버지에 의하여 대표되어지는 유대인의 전통<sup>45)</sup>에서 子息은 아버지로부터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 <個人과 共同體>와의 關係를 <人間과 직업과의 關係> <文學과 직업과의 關係>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 現代人은 오직 職業에 의해서만 社會에 소속하고, 共同體의 一員이 될 수 있다. 現代社會는 人間과 職業을 同一視하고 있다. 人間은 따라서 그 직업에 의해서만 存在를 인정받는다.<sup>46)</sup> 직업이 없는 사람은 社會의 一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Gregor는 變身に 의하여 그의 직업을 버렸다. 그래서 그는 家族으로부터 社會로부터 추방된 것이다.

문학과 직업과의 關係에서도 同一한 說明이 가능하다.

카프카의 삶은 創作과 밀착되어 있다. 그는 1912년 1월 3일자 日記에서

43) Gregor가 女人의 그림을 지키려고 하고, 또 아버지는 Gregor로부터 두 女人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Ödipus-Komplex로 설명이 가능하다.

44) F. Kafka: Briefe 1902~1924. Frankf./M. 1975. S. 337.

<Besser als die Psychoanalyse gefällt mir in diesem Fall die Erkenntnis, daß dieser Vaterkomplex, von dem sich mancher geistig nähert, nicht den unschuldigen Vater sondern das Judentum des Vaters betrifft.>

45) 아버지에 의하여 代表되어지는 유대인 사회의 전통으로는, 첫째 아버지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家父長的 家族制度이고, 둘째는 유대교의 성직자 랍비를 中心으로 하는 유대인 共同體이고, 셋째는 하느님 아버지를 숭배하는 유대교 전통을 들 수 있다. 모두가 아버지(넓은 의미에서)를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음.

46) 拙稿 카프카의 《變身》연구. 독일문학. 제25집(1980) 55面.

《쓴다고 하는 것이 나의 本質에 있어서 가장 生産的인 方向이라는 것이 나의 조직의 內部에서 분명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集中되었다》<sup>47)</sup>라고 밝히고 있다.

카프카에게 있어서 文學이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文學이었다. Gregor의 變身은 文學하겠다는 決意를 상징하고 있다. 變身に 대한 소망은, 이 作品에서 처음으로 테마化한 것은 아니며, 이미 《시골에서의 혼례준비》에서 시작된 것이다. 거기에서 주인공 Raban은 자신의 혼은 甲蟲으로 變身하여 침대에 누워있고, 몸통만이 시골에 여행했으면 좋겠다고 꿈꾼다.<sup>48)</sup> 즉 Raban은 變身하여 現實의 社會와의 교섭을 피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침대에서 자기만의 세계, 즉 정신의 世界에 들어박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文學에는 고독이 필요하고 극도의 자기침잠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Raban의 경우, 變身은 단지 몽상으로 끝나지만, Gregor의 경우는 마침내 實現된 것이다. Gregor는 變身함으로써 社會와의 길을 끊고, 文學할 것을 최종적으로 決定한다. 일단 變身한 다음에는, 통상의 의미에서의 生活을 할 수가 없다. 變身은 통상의 人間生活을 떠나서, 일종의 진공상태가 되는 것, 즉 절대적인 고독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Gregor는 절대고독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現實의 社會와 교섭할 수도 없으며, 家族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가질 수 없고, 직업생활을 계속할 수도 없다. 어머니와 누이는 처음에는 Gregor를 헌신적으로 돕는다. 그러나 점차 家計가 어려워지고, Gregor의 존재가 귀찮아지자, 그에 대한 태도도 냉담해진다. 그리고 Gregor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쓸모없는 存在가 되자, 그를 내쫓아 버리기로 결정해버린다. 즉 Gregor는 직업을 버리고, 變身함으로써 자신의 길 즉 文學에의 길을 선택하자 그것이 家族으로부터는 냉담하게 거부된 것이다. Gregor와 가족과의 관계는 그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成立한다. 그러나 그가 직업을 버리고, 文學에의 길을 택한 時點에는, 그 關係는 파괴된다. Kafka는 이 作品에서 文學과 職業은 兩立할 수가 없음<sup>49)</sup>을 形象화하고 있다.

《變身》의 形象世界는 카프카의 눈에 비친 現實의 世界이다. 表面的인 世界의 배후에 가려져 있는 진실의 세계이다. 의식을 갖지 않은 平凡한 사람의 눈에는, 단지 表面의 世界만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경계지대> 즉 <아르키메데스의 點>에서 본 이 世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W. Emrich는 하이데거의 이론을 빌어, 人間의 思考패턴을 둘로 나누고 있다. 그 하나는 世人(das Man)이고 다른 하나는 自己(das Selbst)이다.<sup>50)</sup> 世人은 平凡한 市民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人間의 理性을 확신하고, 이 세계의 질서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das Selbst는

47) F. Kafka: Tagebücher 1910~1923. Frankf./M. 1976. S. 167.

〈Als es in meinem Organismus klar geworden war, daß das Schreiben die ergiebigste Richtung meines Wesens sei, drängte sich alles hin...〉

48) F. Kafka: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S. 10.

49) 카프카에게 있어서는 文學과 家庭(結婚)도 똑같이 兩立할 수 없음이 Kafka의 Felice와의 관계에서 드러나 있다.

50) Vgl. W. Emrich: Franz Kafka. Wiesbaden 1975. S. 117.

本來의 自己自身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의 存在와 世界의 諸現象을 철저히 思考하는 사람, 즉 인식하는 사람, 소위 實存에 눈 뜬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Gregor는 두개의 세계에서, 즉 경험적·日常의 世界에서, 그리고 동시에 人間本來의 自己의 世界에서도 살고 있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는 두개의 世界, 즉 實存에 눈뜬 自覺과 그렇지 아니한 自我 同時에 存在하고 있다. 實存에 눈뜬 Gregor도 실제로는 平凡한 日常의인 世界에서 父母, 누이와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아르키메데스의 點>에 입각하여 모든 生活 現象을 이해하려고 한다. 양친과 누이 그리고 주변사람들은 <아르키메데스의 點>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래의 論理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Gregor와 家族은 가치규준이 다르다. 거기에서 충돌이 생긴다. Gregor의 家族과의 對立이 그것이다. 그러나 Gregor는 이제 平凡한 일상적인 世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그는 아르키메데스의 點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발견한 자는 이 點을 발견한 필연적인 宿命에 의하여, 다시는 지난날의 古典의인 世界로 되돌아올 수는 없다. Gregor의 죽음은 存在의 統一이 붕괴된 非연속의 世界에서의 存在不可能性의 확인이다.

變身에서 Kafka는, 實存을 自覺하여 참된 것을 추구하는 일 (文學하는 일)과, 직업으로 代表되는 現代사회에서 직업을 버림으로써 가정과 사회로부터 추방된다고 하는, <存在의 근거>를 상실한 現代人의 참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I. Texte:

F. Kafka: Gesammelte Werke, hrsg. von Max Brod, Taschenausgabe in 7 Bänden, Frankfurt /M. 1976.

F. Kafka: Briefe 1902~1924, Frankfurt/M 1975.

F. Kafka: Briefe an Felice und andere Kerrespondenz aus der Verlobungszeit, hrsg. von E. Heller/J. Born, Frankfurt/M. 1976.

### II. Literatur zu F. Kafka:

Anders, Günther; F. Kafka. München 1972.

Beißner, Friedrich: Der Erzähler F. Kafka. Stuttgart 1952.

Binder, Hartmut: Kafka in neuer Sicht. Stuttgart 1976.

Binder, Hartmut (Hrsg.): Kafka-Handbuch. Bd. 2. : Das Werk und seine Wirkung. Stuttgart 1979.

Binder, Hartmut: Der Schaffensprozeß. Frankfurt/M. 1983.

Born, Jürgen (Hrsg.): Franz Kafka. Kritik und Rezeption zu seinen Lebzeiten 1912~1924. Frankfurt/M. 1979.

- Brod, Max: Über Franz Kafka. Frankfurt/M. 1974.
- Emrich, Wilhelm: Protest und Verheißung. Frankfurt/M. und Bonn 1968.
- Emrich, Wilhelm: Franz Kafka. Wiesbaden 1975.
- Grimm, Gunter E./Bayerdörfer, Hans-Peter (Hrsg.): Im Zeichen Hiobs. Königstein/Ts. 1985.
- Hayman, Ronald: Franz Kafka. Sein Leben, seine Welt, sein Werk. München 1983.
- Honegger, Jürg Beat: Das Phänomen der Angst bei Franz Kafka. Berlin 1975.
- Janouch, Gustav: Gespräche mit Kafka. Frankfurt/M. 1968.
- Krusche, Dietrich: Kafka und Kafka-Deutung: Die problematisierte Interaktion. München 1974.
- Nagel, Bert: Kafka and Goethe. Berlin 1977.
- Politzer, Heinz: Franz Kafka. Der Künstler. Frankfurt/M. 1978.
- Politzer, Heinz (Hrsg.): Franz Kafka. (Wege der Forschung) Darmstadt 1973.
- Sokel, Walter H.: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Zur Struktur seiner Kunst. München und Wien 1964.
- Wagenbach, Klaus: Franz Kafka. Bilder aus seinem Leben. Berlin 1983.
- Wagenbach, Klaus: Franz Kafka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Hamburg 1974.



## 《Zusammenfassung》

## Die Unwirklichkeit in der Dichtung F. Kafkas

Huan-Dok Bak

Gegen die Kritik K. Edschmids, Kafka projiziere Wunder in gewöhnliche Vorgänge hinein, erhob Kafka Protest, indem er behauptete, daß er das Gewöhnliche nur aufzeichne. Die anderen hielten seine Bilderwelt mit Unrecht für die unwirkliche, weil sie die Augen schließen und das wirkliche Aussehen und die Bedeutung der Dinge nicht sehen könnten.

Über die Bilder Picassos äußerte sich Kafka wie folgt: Er notiert bloß die Verunstaltungen, die noch nicht in unser Bewußtsein eingedrungen sind. Kunst sei ein Spiegel, der vorgeht wie eine Uhr — manchmal. Diese Erklärung betrifft auch seine Dichtung. Während Picasso in der Deformation die Wahrheit ausdrückt, zeigt uns Kafka in den unwirklichen Ausdrücken das Unzerstörbare.

Die Unwirklichkeit der Dichtung Kafkas läßt sich um so leichter verstehen, wenn man sie nicht als eine aus Eigenschaften oder Konkretheit bestehende Welt, sondern als einheitliche Welt begreift, die beide Seiten umschließt.

Kafka selbst stand an der Grenze der zwei Welten, beobachtete und zeichnete sie zugleich auf, obwohl er weder dieser Welt noch jener Welt gehörte.

Er lebte „genau an der Grenze dieser beiden Stadtteile“ (zw. dem Getto und dem Altstädter Ring), hat „dieses Grenzland zwischen Einsamkeit und Gemeinschaft nur äußerst selten überschritten und sich darin sogar mehr angesiedelt als in der Einsamkeit selbst“ (F. Kafka: Tagebücher 1910~1923).

In diesem Grenzland beobachtet Kafka die äußerlich unwirklich aussehende Welt, die sonst von niemandem gesehen wird. Für Kafka ist dieses Grenzland „der archimedische Punkt“ (Paralipomena. Zu der Reihe ‚Er‘) oder „jener fremde Blick des großen Galilei“ (B. Brecht: Kleines Organon für das Theater). Von diesem Punkt aus wird die Erfahrungswelt nicht mehr als die in Harmonie bestehende, sondern als absurde gesehen, in der „die empirischen Ordnungen von Raum und Zeit, Ursache und Wirkung, nicht mehr zu bestehen scheinen“ (W. Emrich: Zur Ästhetik der modernen Dichtung).